

전환기에 있는 라틴아메리카 개신교 — 새로운 세계를 향한 대안적 종교운동의 시작

이 남 섭

1. 문제제기 — 논의의 출발점

라틴아메리카 개신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현재 라틴아메리카 개신교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가끔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개신교는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신학적 경향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양적 성장을 강조하는 종교계 뉴스를 보다 보면 가톨릭 대륙이 보수적 개신교 대륙으로 곧 바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여러 가지 종교인구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의 성장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난 10년 사이에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 대부분이 진보적인 정부로 교체되었거나 전환 중에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종교 세계는 보수적인 개신교가 급속도로 성장하였는데 어떻게 사회는 진보적 정당을 선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대 라틴아메리카 개신교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최근의 라틴아메리카 개신교는 종교사회적 위기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대안적 종교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가설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라틴아메리카 개신교의 다양한 존재형태와 개념

의 차이를 검토하고, 그 다음 이를 근거로 라틴아메리카 개신교 변화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분석의 이론적 틀로 미국 종교사회학의 종교시장 이론과 하위문화정체성 이론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종교사회학 이론을 활용할 것이다.

2. 개신교의 다양한 존재 형태와 ‘소수 중의 소수’로서 대안적 개신교

라틴아메리카 개신교를 이해하는 데는 무엇보다 먼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개신교와 라틴아메리카에서 개신교 개념이 다르고 라틴아메리카에는 다양한 개신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 이해를 기본으로 하며, 이들이 한국 개신교의 다수를 구성한다. 이것은 한국의 개신교가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지만, 유럽의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다양하지만 개신교의 정통성을 종교개혁에서 찾는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에서 개신교라는 개념은 유럽의 종교개혁 전통을 지닌 역사적 교회(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등)가 사용하고, 복음주의라는 개념은 종교개혁의 전통이 없는 미국계 신흥 종파(오순절 교회 등)가 사용한다. 여기서 라틴아메리카의 개신교를 좀 더 세분화하면 다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유럽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한 역사적 개신교 형태이고, 둘째는 근본주의 신학이념으로 무장한 복음주의 종파 형태이고, 셋째는 토착적인 개신교 복음주의 종파 형태이다.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종파 형태는 시작부터 종교개혁 전통과 무관하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출현한 기독교 종파로, 저항의 뜻을 지닌 개신교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한다. 이론적으로는 신앙과 정치의 구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극우

보수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행태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순수한 신앙공동체의 성격보다는 종교와 정치, 종교와 경제를 결합한 종교와 정경 복합체에 가까운 이익단체의 성격이 강하다. 다른 한편, 토착적인 복음주의 종파는 오순절



브라질의 개신교도

교회운동이 대표하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신앙적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특히 해방적 영성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운동은 대안적 개신교 운동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Bastian, 1994).

전통적으로 유럽의 역사적 개신교와 가톨릭교회는 갈등과 경쟁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라틴아메리카에서 가톨릭교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대다수 개신교는 유럽 종교개혁의 전통을 지닌 역사적 개신교가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한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종파이다.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된다. 종교시장 이론에 의하면 중요한 원인은 종교시장을 둘러싼 경쟁탈전에 있다. 오랫동안 라틴아메리카 종교시장은 가톨릭교회가 독점해 왔다. 독립과 함께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종교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개신교에도 종교시장 진출의 기회가 찾아왔다. 가톨릭이 독점해온 종교시장에 개신교가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럽계의 역사적 개신교는 선교에 소극적이었고,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와 갈등은 경미하였다. 유럽계의 역사적 개신교는 공존의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달리 미국계의 복음주의 종파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종파는 매우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종파의 선교 행태는 미국의 보수적인 레이건·부시 정부와 중남미 극우 군부독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가톨릭교회

와 갈등이 점점 커졌다(Berryman, 1994; Löwy, 1999).

라틴아메리카에서 개신교의 지배적 형태는 시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유럽의 종교개혁 전통을 계승하는 역사적 개신교가 주류였다면, 20세기 중반이후에는 종교개혁 전통과 무관한 미국계의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종파와 토착적인 복음주의 종파그룹이 개신교의 다수를 이룬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문제가 되는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없는 미국계의 근본주의 종파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잔인한 극우 군부독재와 협력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전혀 다른 신학적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는 역사적 개신교의 에큐메니칼 그룹과 토착적인 복음주의 종파 그룹이다. 이 두 그룹은 라틴아메리카 개신교 그룹에서 “소수 중의 소수”이나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대안적 종교운동을 구성한다. 이들은 극우 군부독재의 “탄압을 받았으나 패배하지 않은”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적 개신교를 대표한다(Berryman, 1994; Löwy, 1999).

3. 개신교의 양적성장에 대한 해석 — 특정종교의 위기론에서 종교와 사회의 총체적 위기론

라틴아메리카 개신교에 대한 연구 주제 가운데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주제는 개신교의 양적 성장 현상이다. 이 주제는 사회과학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양쪽에서 모두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은 가톨릭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50년대 가톨릭교회는 개신교의 현재 성장 속도가 지속된다면 라틴아메리카는 곧 개신교 대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1990년대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개신교화’라는 도발적인 선언을 하였다(Stoll, 1990). 이들은 라틴아메리카가 곧 개신교 대륙이 될 것이라고 주

장했다. ‘도래하는 개신교의 시대’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Berryman, 1994). 한국개신교의 라틴아메리카 선교의 관심도 기본적으로 양적인 성장에 있음을 최근의 연구는 확인시켜주고 있다(황윤일, 2009: 77).

개신교의 성장 원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개신교 학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최초의 사회과학적 연구는 개신교의 성장 원인을 가톨릭교회가 근대 사회의 변화와 대중의 변화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한다(Bastian, 1994). 또 하위문화정체성 이론과 비판적인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개신교의 성장은 근대화 과정에서 배재된 도시의 가난한 지역이나 주로 극우 군부독재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해석한다(Smith & Prokopy, 1999; Löwy, 1999: 150-154). 종교시장 이론은 종교 상품의 판매에서 첨단 매체(TV와 인터넷)의 이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종교 상품을 판매하려는 종교기업가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소비자의 대량 확보와 종교 상품의 대량 소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칠레의 복음교회 성장에서 TV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례를 제시한다(Berger and Huntington, 2002). 최근에는 빈곤과 경제적 압력의 증가가 개신교회의 성장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주종택, 2004a; 2004b).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성장 원인 분석이 지닌 문제점은 종교 내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아니면 종교 외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종교 내적 차원의 요인 분석에서도 특정 종교의 위기론에 주목한다. 성장 원인에 대한 통합적 분석과 성장의 의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미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6년 2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WCC) 제9차 총회에서 발표된 ‘라틴아메리카 개신교회 보고서’와¹⁾ 2011년 2월초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Dakar)에서 개최된 해방신학의 세계사회포럼(WFTL/FMTL)에서 발표된 라틴아메리카교

1) 라틴아메리카 개신교회보고서(www.kncc.or.kr).

회 대표단의 ‘라틴아메리카의 상황 분석보고서’는 매우 유용한 성찰이다. 특히 WFTL/FMTL의 문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1940년~1980년은 근대적 사회변동을 위한 외침의 시기였다면, 1980년~2010년은 근대적 변동과정에서 배제된 이들의 포용을 요구하는 시기였다”고 규정하였다.²⁾ 이 두 문서를 보면 라틴아메리카 개신교의 성장 현상은 기존의 제도권 교회의 무능력을 포함하는 교회 내적 위기와 교회 밖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중첩되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신자유주의 경제와 신학적 대응 — 새로운 세계를 향한 대안적 종교운동

국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문제에 대한 기독교계의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대 이후이다. 이와 달리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한 신학계의 대안적 논의는 이미 30년 전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이남섭, 2002). 라틴아메리카 교회의 예언자적 경고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대중은 신자유주의 환상을 제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를 오랫동안 선택하였다. 라틴아메리카 대중이 신자유주의 약속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개별 국가 사정의 차이에 따라 10년 또는 30년 이상이 걸렸다. 2000년대에 와서 라틴아메리카 대다수 대중은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적·민주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을 선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현재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대부분은 진보 정당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였을까? 여기서 우리는 미국계 근본주의 종파의 담론 분석이 필요하다.

30년 전 레이건의 신보수주의 정부는 미주 전역에서 가히 혁명적 열풍이라고 부를 만큼 강한 신자유주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신자유주의

2) 라틴아메리카 교회 대표단의 라틴아메리카 보고서(www.wftl.org).



미국의 보수적 가톨릭 신학자 마이클 노박

이데올로기 확산의 주요 세력 가운데 하나가 자본주의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근본주의 종파였다(이남섭, 2002; 김항섭, 2003). 이들은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가난한 것은 가톨릭 문화 유산 때문이라고 단정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가톨릭 문화는

놀이 좋아해서 축제가 많고, 대책 없이 아이는 많이 낳고, 성실하고 근면한 노동을 싫어하는 게으른 노동 문화로 집약된다. 이와 달리 미국이 발전한 것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합리적인 가족계획과 경건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개신교 윤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록 미국의 보수적인 가톨릭 신학자인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이 가톨릭 문화에도 자본주의 문화가 있다고 변호하였지만 대세는 근본주의 종파 신학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근본주의 종파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성공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왜냐하면 근본주의 종파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중미의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서 근본주의 종파를 포함한 개신교의 인구 비중은 한국의 20%보다 높은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아직도 미국의 원조경제에 연명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극소수는 제1세계의 상류층이 부럽지 않는 성공적인 자본가계층이 되었으나 주민의 다수는 빈곤의 늪에 방치되어 있다. **근본주의 종파의 개종 인구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대부분 중남미의 극우 독재 시기의 국가들이었다.** 극우 군부 비밀군대의 죽음의 협박 앞에 가난한 가톨릭 대중들이 생명의 보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가 않았다. 이들은 생명의 보장을 받거나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개신교로 개종하였다(Stoll, 1990; Berryman, 1994; Löwy, 1999). 이러한 실용적 선택은 중남미 원주민들

에게 새로운 생존방법이 아니다. 이미 16세기 아메리카 대륙 정복 이후 원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낮에는 가톨릭신도, 밤에는 원주민 종교의 신도로 변신하는 이중적 신앙생활방식에 익숙해 있다. 이러한 이중적 생존방식은 500년이 지난 오늘 폭력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종파에 대한 대응 방식에도 나타난다.

대안적 개신교운동의 신자유주의 종교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매우 활발하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의 신자유주의 종교비판이 단순히 담론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대안적 종교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종교의 성장을 단순히 일부 개신교 분파의 성장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종교와 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표현으로 인식한다. 이들은 성서와 종교개혁의 전통이 물신 숭배적 종교로 대치되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우려한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종교에 대한 공허한 비판만 하지 않는다. 이들은 부유한 스위스의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진행되는 부자들의 세계경제포럼에 맞서 가난한 대륙 브라질의 한 지방도시에서 가난한자의 세계사회포럼을 조직하여 새로운 대안적 문화운동을 전개한다. 북쪽의 물신숭배종교에 맞서 생명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성서의 하나님을 전한다. 처음에는 바위에 달걀 던지는 것처럼 참으로 어설픈 행동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거의 바위를 쪼개서 조각을 만들어 새로운 건물의 주춧돌로 사용하는 상황에 있다. 불과 20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변화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선거를 통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부로 전환하였다.

한국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는 라틴아메리카 개신교의 새로운 측면은 신자유주의와 다른 대안적 세계에 대한 신학적 논쟁 현상이다. 신자유주의 세계와 다른 대안적 세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이미 80년대 초에 유토피아 논쟁으로 알려졌다. 80년대의 유토피아 논쟁은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정부의 선거패배와 신자유주의 대세 속에서 대안사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신학적 상상력에서 태어났다. 이와 달리 2000년대



브라질에서 2010년도에 열렸던 세계사회포럼을 위한 시민행렬

의 신자유주의와 다른 대안적 세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대안사회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다수국가에서 현재의 실현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이들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개신교 그룹은 코스타리카의 DEI에 참여하는 에큐메니칼 그룹과 아르헨티나의 ISEDET 그룹 그리고 브라질의 감리교 신학대학의 에큐메니칼 그룹이 대표한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제3세계 신학협의회(EATWOT)와 해방신학의 세계사회포럼(WFTL/FMTL)이 있다. 1980년대 세대와 2000년대의 세대교체가 아주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기독교 세대의 유토피아적 상상력은 라틴아메리카에 신자유주의의 시장세계와 다른 새로운 세계의 형성을 위한 대안적 종교운동의 원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Susin, 2006).

5. 시사점

라틴아메리카 개신교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라틴아메리카 개신교는 무엇보다도 변화의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안과 밖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서 라틴아메리카 개신교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양적 성장의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개신교의 질적인 변화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적 개신교는 양적인 팽창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식민지 가톨릭교회의 실패 경험을 통해 배웠다.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적 개신교회는 폭력과 금권 매수에 의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참된 자발적 변화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대안적 개신교운동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라틴아메리카 개신교에 대한 연구 주제는 해방신학, 개신교의 성장 현상, 오순절 교회 현상과 같은 주제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라틴아메리카 개신교에 대한 연구 주제는 보다 다양하다. 개신교 전통의 새로운 역사서술, 원주민의 토착문화, 여성과 양성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빈곤 극복과 기독교, 환경위기와 생태신학,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 신자유주의와 대안사회, 죽음의 이데올로기와 생명의 신학, 시민사회(NGO)와 종교, 유토피아와 종교의 미래 등 종교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학계도 이제는 라틴아메리카 개신교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남섭(2002), 「최근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의 경향」, 『민중과 신학』, Vol.8, pp. 20-40.
 주종택(2004a), 「멕시코의 사회변화와 개신교의 발전」, 『라틴아메리카연구』,

- Vol.17, No.1, pp. 5-48.
- 주종택(2004b), 「칠레의 사회변화와 개신교의 성장」,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7, No.4, pp. 81-115.
- 김항섭(2003), 「신자유주의 문화와 종교에 관한 고찰」, 『종교문화연구』, Vol.5, pp. 121-137.
- 황윤일(2009), 「이베로아메리카의 교회, 국가, 선교」, 『선교와 신학』, 23집, pp. 77-115.
- Bastian, Jean Pierre(1994), *Protestantismos y modernidad latinoamericana*, México: FCE.
- Berger, P. and Huntington, S.(2002), *Many Globaliz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Berryman, Phillip(1994), *Stubborn Hope. Religion, Politics, and Revolution in Central America*, New York: Orbis Books.
- Löwy, Michael(1999), *Guerra de Dioses*, México: Siglo XXI.
- Smith, C & Prokopy(1999), *Latin American Religion in Motion*, London: Routledge.
- Stoll, David(1990), *Is Latin America Turning Protestant? The Politics of Evangelical Growt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sin, Luiz Carlos, org.(2006), *Teologia para outro mundo possível*, São Paulo: Paulinas.
- 웹사이트
www.wftl.org (2011년 WFTL에서 라틴아메리카교회대표단이 발표한 라틴아메리카)
www.kncc.or.kr (2006년 WCC의 제9차 총회에서 발표한 라틴아메리카 개신교회보고서)

이남섭 — 한일장신대 사회학과 교수